

JB금융 내홍 심화…금감원 지배구조 점검

‘사법리스크 논란’ 전북은행장 선임 강행…지주 내부 인사 혼선 겹쳐
지주 부회장 임명 열흘만 사업…‘그들만의 리그’ 비판 재점화
이사회 독립성 미흡 지적 금감원 8대 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3월까지 개선 TF 구성…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논의 본격화

지난해 ‘이자 장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전북은행에서 제기되는 등 연일 금융당국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JB금융지주.

최근에는 사법리스크 논란을 빚었던 전북은행장 임명을 강행하더니 새로 선임된 지주 부행장은 임명 10일도 안돼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을 하고 난 전후에서 전북은행 행장 선임과 지주 부회장 사퇴 전반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근본적으로 이사회 독립성이 미흡해서 벌어지는 부분이며 회장과 어느정도 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해 관련 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행지주사 지배구조 실태 검사에도 즉각 나섰다. 금감원은 19일부터 23일까지 JB금융지주를 비롯해 국내 8개(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 은행지주사의 지배구조 전반을 1차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며 3월까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TF를 만들어 입법 과제를 도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은행은 지난 연말 김건희 여사 접사 계이트 의혹을 받았던 박춘원 신임 행장 선임을 한 차례 연기했다가 슬그머니 강행한 데 이어 백종일 전 전북은행장은 JB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영전하며 그들만의 리그라는 폐쇄적인 의사 결정 논란을 자초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백 전 은행장은 JB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선임된 지 10일도 안돼 사임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연말 전북은행장 임기를 마친 뒤 올해부터 JB금융지주 부회장을 맡았고 당초 임기 3월 말까지다.

행장은 ‘일신상 사유’로 사임한 뒤 JB금융지주 고문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측은 “박춘원 신임행장 선임은 최종명단에 이름이 없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백종일 전 행장은 예우처원에서 부행장으로 갔지만 각종 논란이 빚어지자 본인이 조직에 누를 끼치기 싫어 고문으로 물려난

/장정철 기자



지방시대위
지방은행장 간담회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9일 김경수 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 김기홍 JB금융그룹회장, 박춘원 전북은행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지방시대위원회>

혁신당 “地選 승리로 전북 정치 독점 심판할 것”

“부패·여론조사 정치 끊겠다”
투명 공천으로 도민 선택권 확대
중대선거구 확대 “인재 통로 넓혀”

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겸증된 인재 영입으로 도민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며 “2인 쪼개기 선거구가 아닌 중대선거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19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자체의 각종 부패 비리와 신영대 의원직 상실 사태가 보여준 여론 조작 등으로 얼룩진 과거의 정치를 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제헌 뒤 “전북 도민과 언론이 힘을 합쳐 새로운 인물과 다양한 시민이 정치에 들어올 통로를 넓히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 정치의 퇴행과 독점은 전북 발전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만큼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청년·여성·소외계층의 정치 참여를 ‘구호’가 아니라 후보와

김병기 결국 민주당 탈당
“재심 없이 떠나겠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혔다.

19일 기자회견 열고 탈당 선언
제명 절차 최고위 종결 검토 요청
“다시 돌아와 당 위해 일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이 지난 13일 제명 의결을 했지만 탈당을 거부하고, 재심신청을 하겠다면서 탈당을 강력히 거부했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은 “당을 떠나겠다는 말과 최고위의 결정으로 종결해 달라고 하는 말도 있다”며 “당현·당규상 절차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는 준비되어 있다”며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충실히 조사를 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서 무지함을 입증할 하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내겠다”며 “다시 돌아와 인사 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을 위해 일하겠다”며 복당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은 “당을 떠나겠다는 말과 최고위의 결정으로 종결해 달라고 하는 말도 있다”며 “당현·당규상 절차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정읍의 맛 쌍화차

정읍의 맛
쌍화차

조국혁신당은 19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자체의 각종 부패 비리와 신영대 의원직 상실 사태가 보여준 여론 조작 등으로 얼룩진 과거의 정치를 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겸증된 인재 영입으로 도민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며 “2인 쪼개기 선거구가 아닌 중대선거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 정치의 퇴행과 독점은 전북 발전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만큼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청년·여성·소외계층의 정치 참여를 ‘구호’가 아니라 후보와

정책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독점은 전북도민의 패배와 전북도정의 부패로 귀咎될 것이다”며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의미있는 승리를 거두어 전북도민 최우선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의 지방선거 승리야말로 보류를 거듭하고 있는 전북 특별자치도법을 확실히 개정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며 “여론조작으로 공

정을 받아도 오직 충성심으로만 공권을 받아도 아무리 부패를 일삼아도 당선되는 이 지독한 일당독점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 “5·3특 구상 속에서 전북이 특별한 소외지역이 되지 않도록, ‘3특의 핵심 거점’이 되는 국가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발굴·유치하고 전북이 가진 지리·산업·인재·공공인프라의 강점을 국가전략과 정확히 연결, 투자와 일자리가 전북으로 들어오게 설계자 역할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정읍시

정읍 쌍화차로 건강 챙기세요!

김민석 총리 전북서 국정설명회…청년·균형발전 강조

전북대서 K-국정설명회 개최

500여명 참여 반년 국정성과 공유

농업·식품·에너지 혁신모델 점검

청년 참여·지원방안 질의응답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JC전북지구, 전북특별자치도 초청으로 전북대 JBNU 컨벤션센터에서 K-국정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 김 총리는 지역 주민과 청년, JC 관계자, 시도 의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간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방향과 비전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민주권정부 2년차를 맞아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본격적으로 다져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며,

“지역기반 미래성장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전북이 맡고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또 “농업·식품·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전북에서 중점 추진 중인 혁신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의 참여와 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청년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새만금 개발은 이날 설명회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12월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희망고문을 끝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정리하자’며 사업 가속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도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에 대한 공감대가 재확인됐으며, 민간주도에서 공공중심 개발로의 전환이 강조됐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시범모델 구현 방침도 언급됐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에 반영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한층 탄력이 불을 전망이다. 불확실한 사업을 정리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차원에서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에 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피지컬AI 분야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중요성이 부각됐다.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아 본격 추진되며, 전북이 그 중심에 서게 됐다. 이에 앞서 과기부 공모사업인 ‘협업지능 피지컬AI 전략 PoC’에도 최종

선정돼 국비 219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지난해 12월 농림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공모에 전북자치도가 선정되면서 대한 민국 그린바이오의 국가 거점으로 부상했다. 이를 고도화해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 분야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지난 서울·인천·전남·경남 등에 이은 9번째 K-국정설명회로, 설명회 현장은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K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지자체·대학 등 각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여는 한편 국민과의 적극적이고 격의없는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 한파 대비 김제 경로당 점검

구봉·구성경로당 2곳 방문

난방기·전기시설·방역 관리 점검

현장서 의견 청취 어르신 보호 강화

전북도는 19일 노홍석 행정부지사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김제시 구봉경로당과 구성경로당 등 2개 경로당을 방문, 난방시설과 어르신 이용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기온 급강하에 따른 한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 부지사는 경로당 난방기 작동 상태

를 비롯해 보일러 및 전기시설의 안전 여부, 실내 적정 온도 유지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겨울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관리 실태도 함께 살폈다.

또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 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바로 개선하는 한편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겨울철 동안 지속적인 경로당 점검과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9일 노홍석 행정부지사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김제시 구봉경로당과 구성경로당 등 2개 경로당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도>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겨울철 한파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

기간 동안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응급 침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설 명절 앞두고 선물·제수용 식품안전 점검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오는 23일까지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집중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과·양갱·떡·수산물 등 명절 다소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70개소 ▲즉석판매·식품접객업 등 제사 음식 조리·판매업소 100개소 ▲대형유통업체 등 기타 식품판매업소 40개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18개소 등 총 228곳이다.

점검은 도와 14개 시·군이 합동으로 추진하며, 총 8개 반 24명(도 2명, 시·군 14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명)을 투입해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나 점검 실적이 없는 업소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

생활밀착형 노인복지 공약 발표 임플란트 지원 2배 확대 등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그동안 단편적·사업별로 흩어져 추진돼 온 노인정책은 이제는 건강·이동·여가를 하나로 묶는 ‘전북형 통합 노후 보장 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화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전북에서 노인정책은 단순한 복지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생존 전략이다.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를 되살리는 생활밀착형 노인복지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북 전역 6,954개 모든 경로당을 문화·체육·의료가 결합된 스마트·문화·복

다는 것이다. 경로당 규모와 이용 특성에 따라 복합공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스마트기기 교육존을 설치해 디지털 접근성을 높인다. 여기에 스크린 스포츠, 디지털 인지 게임 등 어르신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도입·확산한다.

특히 남원 지역의 우수사례로 평가받는 ‘온·경로 플랫폼’을 전북 전역으로 확대해, 경로당에서 비대면 진료와 약처방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산어촌 지역에서도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현재 일부 시군에 한정적으로 운

영 중인 전동휠체어 점검·수리 서비스를 광역·기초 지자체 협업을 통해 순회형 서비스로 확대 운영해, 고령자와 장애인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 분야에서는 현행 최대 2개 수준인 임플란트 지원을 4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노년기 건강 악화와 개인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가 정책으로는 파크골프를 전북의 대표 노인 여가·스포츠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한 36홀 이상 공인 파크골프장 조성과 14개 시군별 공인 구장 확충, 지도사 상시 배치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더불어 대통령령·도지사기 대회를 개최하고, 장비 무상

유산미디어아트 관(97억원), △정읍 국립금제원 조성(58.3억원),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32.9억원), 국민연금공단 인재

개발원 등 정읍 발전을 위한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서 국정감사 주요 성과와 입법·정책 활동 결실을 공유하고, 더불어민주당 전북 특별자치도당 위원장으로서 전북의 재도약을 위한 추진사항과 63 지방 선거를 위한 공정한 공천 관리 등을 약속했다.

윤 의원은 ‘해결하는 정치 정읍을 바꾼다’는 주제에 걸맞게 5개 공약인 △정읍 첨단의료복합 산업단지 조성,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추진, △내장저수지 주변 개발 등 사계절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 △정읍 경찰서·정읍우체국 이전부지 개발 등 도심 재생 활성화 추진, △국책 연구기관 기능 고도화에 대한 상세 내역과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2026년 정읍 국가예산을 정부 예산 신장률(8.1%)보다 높은 9.9% 증가한 6,383억원을 확보했음을 설명하고, 종사업비 2,500억원 규모의 ‘우주방사선 영향평가용 사이클로트론 연구시설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 확보를 비롯해 △국가

/서울=김영목기자

윤준병, 정읍 의정보고회…예산·공약 성과 공유

2026 국비 6,383억 확보 보고 첨단의료산단 등 5대 공약 제시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은 지난 17일 정읍시 예술회관에서 ‘해결하는 정치가 정읍을 바꿉니다’라는 주제로 2025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정읍시민 등 8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윤준병 의원은 불법계엄과 내란 사태의 극복 과정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탄생을 위한 노력과 역할, 정읍시를 위한 대선 공약 전행상황과 금년도 정읍시 예산 확보내역 등을 정읍시민들께 보고했다.

윤 의원은 ‘해결하는 정치를 바꾼다’는 주제에 걸맞게 5개 공약인 △정읍 첨단의료복합 산업단지 조성,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추진, △내장저수지 주변 개발 등 사계절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 △정읍 경찰서·정읍우체국 이전부지 개발 등 도심 재생 활성화 추진, △국책 연구기관 기능 고도화에 대한 상세 내역과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2026년 정읍 국가예산을 정부 예산 신장률(8.1%)보다 높은 9.9% 증가한 6,383억원을 확보했음을 설명하고, 종사업비 2,500억원 규모의 ‘우주방사선 영향평가용 사이클로트론 연구시설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 확보를 비롯해 △국가

/서울=김영목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 ‘1인1표제’ 의결

찬성 59명 반대 2명 의결

오는 22일부터 당원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19일 ‘1인 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안건’의 건’을 처리했다. 이날 당무위원회에는 당무위원

79명 중 현장 참석자 16명을 포함해 61명이 참여했다. 이 안건은 찬성 59명, 반대 2명으로 의결됐다.

당은 오는 22일부터 권리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내달 2일 제5차 중앙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중앙위원 대상 온라인 투표는 2일 오전 10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서울=김영목기자

이원택 “경로당 스마트·문화 복합거점으로 전환해야”



이원택 의원

다는 것이다. 경로당 규모와 이용 특성에 따라 복합공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스마트기기 교육존을 설치해 디지털 접근성을 높인다. 여기에 스크린 스포츠, 디지털 인지 게임 등 어르신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도입·확산한다.

특히 남원 지역의 우수사례로 평가받는 ‘온·경로 플랫폼’을 전북 전역으로 확대해, 경로당에서 비대면 진료와 약처방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산어촌 지역에서도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현재 일부 시군에 한정적으로 운

대여와 무상 레슨 제공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기존 리모델링 사업이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문턱, 미끄럼, 낙상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경로당 문턱 전면 제거, 손잡이·미끄럼 방지 시설 보강, ‘경로당 안심주기 표준모델’ 확산을 통해 경로당을 생활 안전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노인정책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 사회적 고립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며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건강한 노후와 지속 가능한 전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난방기 화재 대비

1 난방기 안전인증(KC)마크 확인하기

2 난방기구의 열선등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3 난방기구 주변에 인화물질 두지 않기

4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 뽑았는지 확인하기

전주시 지방재 안정적 관리 유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필수 기반 조성 활용

전주시가 발행한 지방채가 정부가 정한 기준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전주시 지방채 관련 우려와 관련해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재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주시 지방채 잔액은 6225억원으로 채무 비율은 20.1%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정한 재정주의 기준(25%) 이내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784억원 줄어드는 등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자체 재원만으로 대구

모 필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한계를 겪었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실효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토지 매입을 위한 집중적인 재정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시가 민선8기 출범 이후 발행한 지방채 4012억원 중 57%에 해당하는 2285억원은 이러한 재정 여건과 시급한 사업 추진 필요성 속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매입에 사용됐다. 나머지 43%인 1727억원은 전주컨벤션센터,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전북의 광역 필수 인프라 구축에 투입됐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미래 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지난해 6월 실효 시점을 앞두고 있어 사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도시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커 있으며, 일단 개발이 이뤄진 이후에는 공원 기능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재정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시민의 녹지 이용권과 장기적인 도시환경 보전을 위해 최근 3년 동안 재정을 집중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확보했다.

또 전주컨벤션센터와 실내체육관, 복합스포츠타운 등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서 전주시가 실질적인 광역 거점 도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로,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와 관광·서비스 산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과감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에 투입됐다.

시는 이러한 시설들이 장기 침체 국면에 놓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설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전반의 성장 동력을 되살릴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요구되는 시점에

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지방채를 활용하면서 단기적인 채무 부담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지만, 전주시의 자산 규모 역시 꾸준히 늘어 지난 2024년 결산 기준 통합자산은 11조 6052억원으로 지난 2021년 대비 5146억원 증가했으며, 기초 자치체 226개 중에 12위다. 또,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3% 수준에 그쳐 재정 건전성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시는 과거 지방채를 발행한 뒤 조기상환을 통해 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춘 경험이 있으며, 현재도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 저금리 차환 등의 계획이 담긴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을 토대로 전주시 채무 비율은 오는 2033년이면 12%대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정소민 기자

우시장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 간담회 추진

지역거주 국가유공자 “환호”

권 보훈병원 설립 공감대 형성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자리를 통해 우 시장은 지역민과 지역거주 국가유공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 필요성과 보훈의료 인프라 구축 위에 대한 사항들이 공유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역 의료 접근성 문제와 고충 등에 대한 논의를 중점으로 가졌다.

우시기 전주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보훈병원 설립지 검토와 중앙부처 방문, 국회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저소득계층 주거 임대보증금 지원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최대 2천만원 무이자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

전주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연중 '2026년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마련 부담으로 입주가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입주 시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이를 통해 저소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공공·국민 임대)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경우다. 단, 이미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기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5억 4150만 원(도비 40%, 시비 60%)을 투입해 총 64호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계약금은 신청자가 본인 부담을 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가능하며, 연장을 위해서는 최근 2년 이내 월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월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회수된다.

신청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가능하며,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세대주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와 수급자 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전주시청 건축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신청 서식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왼쪽 두 번째 조화자 제19대 회장, 가운데 김한철 제20대 회장

제20대 전주시 통장연합회장 김한철 통장 취임

전주시 통장연합회장 이취임식 개최

은 “통장연합회가 시정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19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통장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제19대 조화자 회장이 이임하고, 제20대 김한철 회장이 취임했다.

김한철 신임 전주시 통장연합회장

/정소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새 얼굴” 2026년 안전 출발

현장 중심 인력 배치

여할 예정이다. 박덕규 소방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재난 양상이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모든 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갖고 임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며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전주를 만드는 데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이번 상반기 인사를 통해 조직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재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해 지역 사회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정연구원, 특례시 제도 개편 대응 전략 방향 제시

전주시정연구원, JJRI 정책브리핑 제13호·제14호 동시 발간

전주시정연구원은 ‘JJRI 정책브리핑 제13호·제14호’를 동시에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JJRI 정책브리핑 제13호·14호는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모색하고, 향후 특례시 제도 개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주시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특례시 제도는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근거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에 대해 사무

장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많은 시민들이 찾는 지역에 편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올해 추가로 설치하는 2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기준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운영하는 한편, 청소용역을 통한 상시 관리 체계를 적용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적으로 대응하고, 전북권역의 성장을 이끄는 거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북도의 생존전략으로,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연구원은 이번 정책브리핑을 통해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경유 행정으로 인한 비효율의 최소화 △상위 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 기반 마련 △행정기 구획 등 개편을 통한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동기 부여 △광역시 수준의 주민지원 확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전주시의 특례시로의 도약을 위해 △

특례시 지정 기준의 다양화 방안이 반영된 법률의 개정 △전주시 맞춤형 특례사무 발굴 및 발굴 사무 이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특례시의 법적 지위 부여 △상위 정부 차원의 적정한 재정지원 방안 포함된 재정 특례의 명확한 규정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연구원은 제안한 전략들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특례시 제도와 연관된 비수도권의 주요 대도시 및 특례시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구축한 공동의 논리를 바탕으로 상위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희망의샘 안전봉사대 ‘창립 18주년 기념총회’ 개최

“작은 손길 모여 큰 희망이 됩니다!”

전주시 희망의샘 안전봉사대 유춘열 이사장은 지난 17일 창립 18주년 기념총회를 개최했다.

전주시 희망의샘 안전봉사대는 2008년 출범 이후 전기·기술 분야 재능기부를 중심으로 전기점검·보수 16회, 생활환경 개선 3회를 추진했다.

또 독거노인 무료급식 90회,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 10회 등 총 102회의 복지·돌봄 봉사를 통해 약 3600명이 참여하고 8700만원 상당 나눔을 실천해 왔다.

아울러 총 275명이 참여한 약 1810만 원 회비가 투입됐다.

이날 행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


 이사장은 지난 17일 창립 18주년 기념총회를 개최했다.

전주시 희망의샘 안전봉사대 유춘열 이사장은 지난 17일 창립 18주년 기념총회를 개최했다.

롯 조경래 전주해성중·고 총동창회장, 봉사대 회원 등 90여명 봉사대는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봉사 유공자 표창과 봉사대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함께 진행됐다.

문경관 회장은 “희망의샘 안전봉사대가 앞으로도 지역의 든든한 안전지킴이자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샘으로 역할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8년간 한결같이 봉사를 이어온 봉사대원 여러분의 현신이 전주를 더욱 따뜻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봉사대는 정기총회, 환경정화 봉사, 재능기부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로 겨울철 주택 화재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전주덕진119청소년단은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소방안전 홍보 부스 운영, 한국119청소년단 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문화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119청소년단은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소방안전 홍보 부스 운영, 한국119청소년단 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문화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전주덕진119청소년단은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소방안전 홍보 부스 운영, 한국119청소년단 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문화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정소민 기자

'최강 한파' 예보, 농작물 언 피해 예방 당부

일부 지역 영하 10도 안팎…농진청 “농업 시설물 관리 철저히”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월 20일부터 주말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최강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농작물 동해(언 피해), 농업시설물 저온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농업인의 한랭질환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이후 북서쪽에 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일부 내륙과 산간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연말·연초 한파 이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 일부 작물은 생육 재개와 수분 함량이 증가한 상태라 한파가 지속될 경우, 언 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 또한, 토양이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서리발 발생과 뿐만 아니라 노출에 유의한다. 배수로 정비와 담암(흙 놀려 주기) 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시 비닐이나 부직포 등으로 덮어준다.

아울러 농업시설물 수도 배관의 결

빙·파손 위험에 대비해 계량기·배관 보온 조치를 강화하고, 이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시설작물= 열풍기 등 난방기 작동

중 과열, 정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고체연료를 확보한

다. 보온커튼, 이중피복, 난방시설 등을 활용해 작물별 적정 최저온도를 유지하고, 낮 시간대 시설 내부 온도가 오르면 환기해 온도 편차를 줄인다.

△노지 월동작물= 마늘·양파, 맥류 등 월동작물은 서리발 발생과 뿐만 아니라 노출에 유의한다. 배수로 정비와 담암(흙 놀려 주기) 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시 비닐이나 부직포 등으로 덮어준다.

△과수= 과수원에서는 나무의 중심 줄기와 주요 가지에서 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다. 줄기에 흰색 수성페인트를 칠했더라도 벽진, 부직포, 보온 패드 등으로 감싸주면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정소민 기자



북전주농협 고향주부모임, 일손돕기 봉사활동

인력부족 농가에 큰 도움

등에 참여해 일손을 보탰다.

회원들은 “농촌 인력부족으로 인해 힘든 수확철을 보내는 농가를 도와 같은 농업인으로써 큰 보람”이라고 전했으며, 농장주는 “한라봉을 제 시기에 수확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했는데 이렇게 지원해줘서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우광 조합장은 “앞으로도 고향주부모임과 함께 어려운 농가와 이웃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농협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지역과 함께 나누는 승진의 기쁨

4급 승진자 15명 등 복합 위기아동에 사회공헌활동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길환)는 19일 금년도 4급 승진자 15명에 대한 임용장 교부식을 가졌다.

올해 승진자 15명은 승진의 기쁨을 지역사회와 함께 누리고자, 임용장 교부식을 마친 뒤 방학을 맞은 복합위기아동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복합위기아동이라면 가정 내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위기 등 다양한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상생활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말한다.

승진자를 포함한 전북본부 임직원들은 떡국떡, 곰탕, 만두 등 식료품 18종이 담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19일 금년도 4급 승진자 15명에 대한 임용장 교부식을 가졌다. 올해 승진자 15명은 방학을 맞은 복합위기아동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중기청, 창업기업 지원·기술보호 설명회 개최

창업지원사업·기술침해 예방 방안 등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과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창업지원사업과 기술보호 정책을 안내하고, 기술침해 사전 예방을 위해 ‘2026년도 지원사업 및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술유출 및 침해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기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주요 창업지원사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기업 현장에

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보호 제도와 대응 방안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행사에서는 △2026년도 정부 창업 지원사업 안내 △중소·창업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정책 및 제도 소개 △기술침해 유형 및 사전 예방 방안 △기술유출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지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기술보호 전문기관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기술침해 예방 전략과 기업 맞춤형 보호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초기 창업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적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중기청 전세희 청장은 “이번 설명회는 초기 창업기업이 정부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술보호 인식

/정소민 기자

전북TP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지역특성화사업 전문인력양성사업’ 2026년도 참여 대학을 모집한다.

본 사업은 도내 4년제 대학의 취업연계형 특성화 학사·硕사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대학이 기업 및 연구기관과 사전 매칭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혁신성장산업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특성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생 취업연계 학생지원금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직·간접비 등을 지원 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협력추진단장은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대학·기업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청년 인재의 지역 정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규태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기업과 대학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의 전문 인

참깨들끼 유용성분, 종자 파괴 없이 5분 만에 분석

농진청, 초분광영상·인공지능 결합 분석 모델 개발

최근 기능성 식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용성분 함량이 높은 작물 품종 개발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내 농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첨단 육종 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종자 분석 분야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영상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석 기술을 결합해 종자를 손상하지 않고도 참깨와 들깨 유용성분 함량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유용성분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을 적용하면, 참깨의 세사민, 세사몰린, 리그난 성분과 들깨의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올레산, 리놀레산, 오메가-3의 총 지방산 함량을 비파괴 방식으로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단 1회 촬영으로 500알 종자를 분석하는 데 48시간 걸렸던 작업을 5~10분 안에 수행할 수 있다. 분석 시간이 줄어든 데다 기존 이화학적 분석과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여 성분분석과 종자 선별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참깨·들깨 같이 기능 성분 함량이 중요한 작물의 품종 개발은 종자를 파괴한 뒤 이화학적 성분분석을 통해 진행하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번에 개발한 분석 모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종자 육종 과정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스마트생산기술과 연구

진은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자동화 모델 저작권 2건 등록을 진행 중이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 지침(매뉴얼) 1건도 구축했다.

오는 3월에는 국립식량과학원 육종부서를 대상으로 시연회와 자동화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 현장 기술 확산과 실질적인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희망 나눔 신년음악회’ 성료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2026 희망 나눔 신년음악회’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준원)은 “전북은행과 함께 하는 ‘2026 희망 나눔 신년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음악회는 도민 및 고객과 함께 ‘말처럼 힘차고 역동적인 기운으로 변화하는 시대, 목표한 바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는 희망찬 새해 메시지를 담았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전개는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가장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준원 은행장은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으로 성원해 주시는 도민들과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음악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전개는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가장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교원 수급 정책 개선 촉구

3월 3~27일까지

교직원·학생·학부모
대상 서명운동 전개

전북교육청은 정부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따른 학교의 의견 수렴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교원 수급 정책 개선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이번 서명운동은 실제 수업이 이뤄지는 학급 수와 지역 여건, 학교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교육 현장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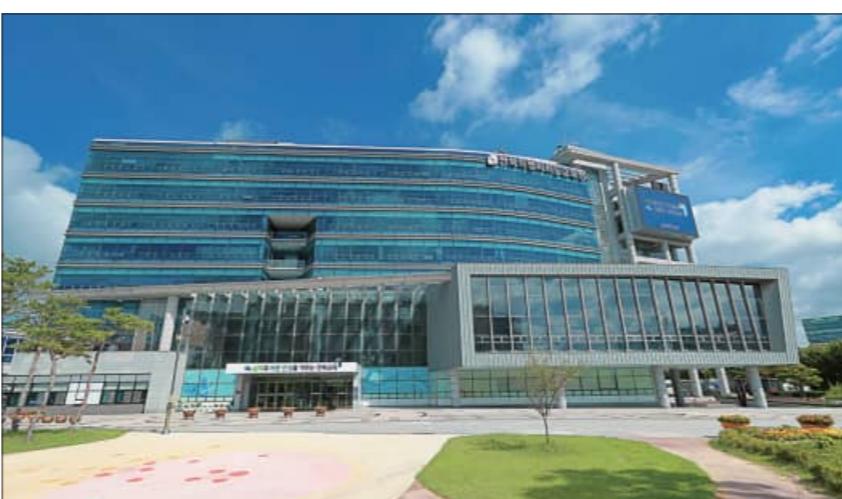
특히 전북은 농산어촌과 인구 감소 지

역 비중이 높아 소규모학교, 순회수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다교과 지도, 기초학력 지원 등 새로운 정책 수요 증가로 교원 1인당 담당 업무와 책임이 기증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교원 정원 감축은 수업 저하와 학생 맞춤형 교육이 약화로 이어지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공공성을 지키는 핵심 과제라 보고 교육공동체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3월 3~27일까지 학교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유정기 권한대행, 학교건설현장 '안전최우선' 당부

솔내유치원 공사 현장 등
방문…안전 강화 총력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권한대행은 지난 16일 학교 건설공사 현황을 점검하며 관계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 유지를 당부했다.

유 권한대행은 학교 건설공사 현장은 (가칭) 전주보름특수학교 신축공사와 전주 솔내유치원 공사 현장 2곳이다.

특히 전주보름특수학교는 올해 건설

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에 포함되며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활동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주 솔내유치원은 일반학급 15학급, 특수학급 3학급 등 총 18학급 규모로, 체육관과 야외 놀이 학습장 등의 교육 공간을 갖춰 유아들의 신체활동 등 미래형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해 설립됐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생과 교직원이 만족하고, 완성도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와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예술인 9명, 인사동 한국미술관 초청 전시 열어

신춘서회달력 초대개인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활동하는 중견 예술인 9명이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사릿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서울 나들이에 본격 나섰다.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 초정 '신춘서회달력 초대 개인전'이 인사동 한국미술관 2층 전관에서 14~20일까지 서각 사진 서예 문인화 천아트 등 9명의 작가들이 자기들만의 세상을 꿈꾸며 작품 세

례 어울려 장르가 다른 전시로 다양한 불거리가 있는 색 다른 전시회로 알려졌다. 30년을 봇과 소통하며 목향에 빠진 서예작품을 선보인 목향 양해영 작가의 필력은 세월의 향기와 물씬 풍기며 고뇌의 모습이 보인 듯 하다.

또 심전은 '松茂鶴壽(송무학수)'를 쉽 없이 응암거리고 글씨를 쓰며 투병 중인 남편이 송무학수(송무학수)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한 기원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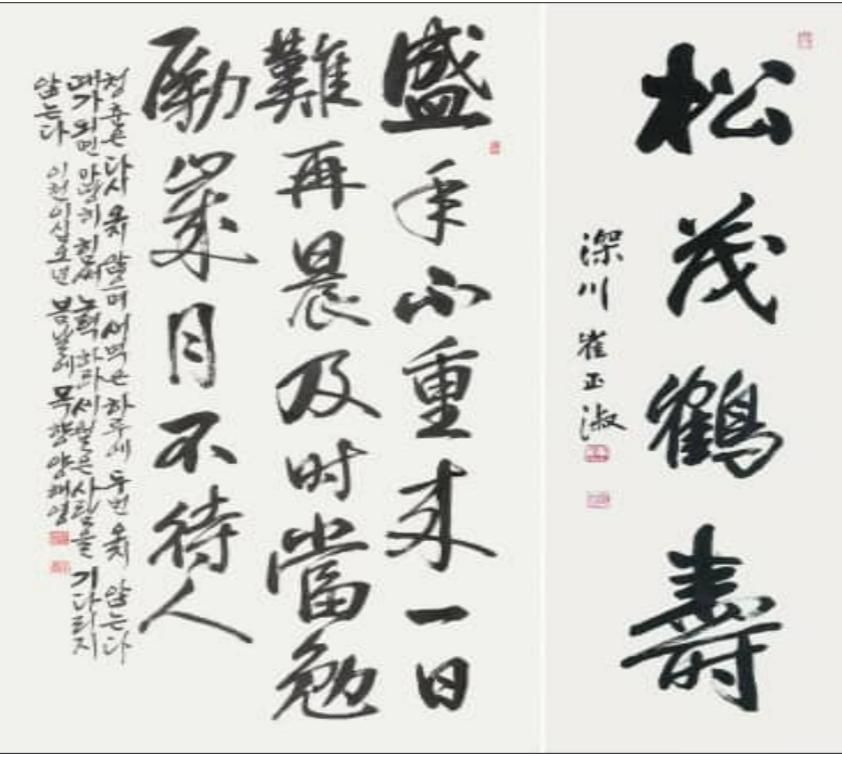
*목향 양해영 作
盛年不重來(성년부중래)
청춘은 다시 오지 않으며
새벽은 하루에 두 번 오지 않는다.

때가 되면 마땅히 힘써 노력하라.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심천 최정숙 作
松茂鶴壽(송무학수)

작가는 3년 활동한 신인작가와 30년

의 세월을 묵묵히 걸어온 예술인이 한



왼쪽부터 성년부중래, 송무학수



'제7회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시상식 개최

김성희 교사 등 6명 수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헌신했다.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민주적 학교 운영과 따뜻한 교육공동체 실현에 크게 기여했다.

김정희 군산군북초 교육복지사는 교육배려 학생들을 위해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체 활동 추진 및 맞춤형 지역자원 연계,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규 부안남초 교장은 청소년단체 활동(스카우트)을 통해 체험 중심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이 친란한 내일의 삶을 준비하고 미래를 잊는 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받았다.

송원용 전주반월초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체육·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긍정적 학교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재균 이사장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교직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자질에 달려 있다"며 "교육공동체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이성기 교육장 '급여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마련

업무능력향상 지원

전북군산교육지원청 이성기 교육장은 19일 '2026년 급여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2026년 급여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는 △교육공무직원 급여 업무 이해도 향상 △급여 관련 감사 지적 사례 공유 △업무 처리 역량 △청렴성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됐다.

/김영태 기자

꽁꽁 얼어 붙은 도로, 미끄럼 주의!

겨울철 결빙도로로 안전운전수칙

- 출발 전 차량 점검하기**
- 서행 운전하기**
- 안전거리 확보하기**
- 급격한 조작 피하기**

1. 타이어, 전조등, 와이퍼 등 점검하기
2. 평소 대비 20~50% 감속 운전하기
3. 앞차와 안전거리, 평소의 2~3배로 확보하기
4. 급가속, 급회전, 급제동 하지 않기

익산시,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 316세대에 난방비 지원

익산시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 부담 완화와 한파로 인한 생활 위기 예방에 나섰다.

익산시는 월동 난방비 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 316세대에 세대당 20만 원씩, 총 6,3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시는 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일괄 지원에서 벗어나 에너지 바우처와 다른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한 세대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운데 난방비 부담이 큰 에너지 취약계층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수급 여부 △중복 지원 여부 △가구의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발굴·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재원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금과 배분사업비로 마련됐다. 민·관 협력으로 조성된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공공재정의 한계를 보완한 점이 특징이다.

시는 2023년부터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함께 자체적인 월동 난방비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제도권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일시적 위기에 놓인 가구까지 폭넓게 살피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왔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오는 30일까지
'축제채움단' 신규 단원 모집

군산시가 19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군산축제채움단' 신규 단원들을 모집한다.

'군산축제채움단'은 시민의 관객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축제를 내실 있고 효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시민 참여형 평가단으로, 지난해 첫 운영을 통해 시민 의견을 축제 운영에 반영하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선발된 평가 단원은 올 한 해 동안 군산 시간여행축제 등 군산시 대표 축제 및 행사(광보리축제·수제맥주·블루스페스티벌·국가유산미디어아트·국가유산아행·시간여행축제·չ源源페스티벌 등)를 직접 방문해 암행 현장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단은 암행 이후 반드시 현장 사진과 평가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평가단에게는 소정의 평가 수당이 지원된다.

군산축제채움단 활동을 희망하는 18세 이상 군산시민은 군산시청 5층 기획예산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niji5305@korea.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www.gunsan.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립도서관, 한국 문학의 거장 황석영 작가 초청 강연

군산시립도서관에서 22일 저녁 7시 한국 문학의 거목 황석영 작가를 초청해 '군산작가 특별강연'이 열린다.

이번 강연은 새해를 맞아 매일의 삶에 인문학에 온기를 더하고자 운영되는 '인문 특화프로그램'의 하나로 기획됐다.

지난 13일 진행된 백수린 작가 초청 강연이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문학적 감동을 선사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그 열기를 이어갈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할매' 출간 기념 황석영 작가 x 류보선 교수 특별 대담이 마련됐다.

이번 강연은 최근 출간돼 문단과 독자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황석영 작가의 장편소설 '할매'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류보선 교수(문학평론가)가 대담자로 나서, 황석영 작가와 깊이 있게 소통하는 대담 형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평론가의 날카로운 해석과 거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작품 속에 담긴 군산의 서사를 입체적으로 풀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소설 '할매'는 군산 하재마을의 600년 된 팽나무 '할매'를 화자로 내세운 작품인 만큼, 이번 강연은 군산 시민들에게 더욱 각별하고 깊은 울림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신혼부부 주거 부담 던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3%·연 최대 6백만원 지원…최대 10년까지

익산시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돋는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이어간다.

익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익산시 자체 사업으로, 신혼부부 정착을 돋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실효성이 있는 인구 유입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익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0여 호에 혜택을 제공했다. 이 가운데

약 40%인 79호, 세대원 포함 108명이 다른 지역에서 익산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냈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자의 70% 이상이 구축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신혼부부의 경제 상황과 주거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는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도 지원 대상자를 연중 모집 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익산시와 협약을 맺은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시가 대출이자를 최대 3%(연 최대 600만 원)

까지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2년마다 신청해야 하며, 요건 충족 시 최대 6년까지 연장된다. 이후 자녀 수가 늘어날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협약은 행 상담 후 익산시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협약 대출 상품 이용 시에만 지원 가능하며, 베텀목 전세자금 대출 등 다른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가정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정착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맞춤형 주거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축산 악취 '미생물'로 잡는다

공모 선정돼 20억원 확보

'티스'는 가축의 소화·흡수율을 높여 분뇨 내 악취 유발 물질을 원천적으로 줄여주는 유의 미생물이다.

시는 이를 현장에 적용한 뒤, 냄새 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하고 농가별 맞춤형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해 2년간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의 명칭은 '2026년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사업'이다. 시는 확보된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관내 10개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미생물 제제를 활용해 실질적인 악취 저감 실증에 나선다.

사업의 핵심인 '에코프로바이오' 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개시

접수 과정 불편사항 최소화…현장 행정 '총력'

정읍시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첫날인 19일, 시민들이 대기 시간 없이 원활하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현장에 집중하며 본격적인 지급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이수수 시장과 관계 공무원은 관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수성동과 내장상동 행정복지센터를 잇달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폈다.

이들은 신청서 작성 공간과 시민 이동 동선, 안내 인력 배치 현황 등을 직접 점검하며 실제 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확인했다.

특히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대기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단력적인 인력 운영을 주문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전담 안내 요원을 배치하는 등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현장 대응을 강조했다.

이수수 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시민의 손에 가장 먼저 닿아야 할 정



앞서 시는 지난 16일에도 사전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접수 준비 상황을 미리 점검한 바 있다.

시는 16일 사전 점검에 이어 19일 실제 지급 현장까지 꼼꼼히 챙기며, 준비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수수 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시민의 손에 가장 먼저 닿아야 할 정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KBS 전국노래자랑' 열린다

신청사 준공 기념
내달 5일까지 선착순 접수

KBS 전국노래자랑 무대가 익산을 찾았습니다.

익산시는 오는 2월 13일 익산시립내체육관에서 전국노래자랑 '익산시 편'이 공개 녹화로 진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방송은 3월 말까지 전국에 방영될 예정이다.

이번 무대는 시민의 염원이었던 익산시 신청사 개장을 다 함께 축하하고, 힘찬 출발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최대 가수로 박상철과 서주경, 양지

은, 정서주, 김용빈이 출연해 축하 무대를 꾸민다. 본선 무대에는 예선을 통과한 15~17팀의 시민 참가자가 무대에 오르게 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월 5일

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행정지원과에서 선착순 300명까지 가능하다. 예심은 2월 11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시 관계자는 "신청사 준공은 익산의 미래를 여는 상징적인 순간"이라며 "전국노래자랑을 통해 시민과 함께 신청사 개장을 축하하고, 익산의 밝은 에너지를 전국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저소득층 의료 지원 확대

의료급여 '부양비' 전면 폐지…복지 정책 강화

군산시는 2026년도 1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의 부양비 폐지 및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성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부를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

있으면, 그 일부를 부모에게 지원한 것으로 간주해 부모의 소득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실제 부양의무자에게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부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각지대에 탈락되는 등 사각지대에 대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에 적용됐던 10%의 부양비가 전면 폐지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불합리한 수급 자격 문턱에서 탈락되는 등 사각지대에 대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를 신청한 부모의 자격을 판단할 때 자녀가 일정 소득이

군산시는 이번 부양비 폐지 관리해 시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고 즉각적인 민원 접수를 위해 읍면동을 통해 협조를 구하고 있다.

또한 그간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시민들의 복지율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도 나설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 개편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부양비 폐지 등 달라진 내용을 적극 안내해 저소득층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확 달라지는 2026 제도·시책 홍보

정읍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일상 속 변화를 이끌 7개 분야, 총 134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신규 도입 52

건과 기존 혜택이 확대되는 82건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는 △복지·건강·안전 분야 53건 △농업·축산(27건) △행정·시민생활(19건) △경제·산업(16건) 등으로 시민 삶 전반을 촘촘하게 아우른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시책'을 전자책(e-book)으로 제작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종이 책자는 시청 민원실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군, 서남권 해상풍력 본격화

'신재생에너지 발전 조례' 제정... "주민참여 모범사례 만들 것"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고창군이 "해상풍력 사업이 주민참여와 이익공유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사업자들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2.4GW 규모(원전 2기 이상)의 해상풍력단지를 짓게 된다.

서남해는 해상풍력의 최적지로 평가

받아 왔으며, 2011년부터 고창 부안 해역에 2.46GW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0MW 규모의 실증단지를 완공해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고창군 역시 해상풍력 사업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행정적 준비를 치러온 진행해 왔다.

해상풍력은 해양 공간을 활용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환경 보전과 어업 활동과의 공존, 지역 수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 개발로 발생하는 이의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되는지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31일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해상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군민이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상풍력 사업을 일방적인 개발이 아닌, 주민과 지역이 함께 협력을 나누는 상생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개발 사업자의 이익으로만 끝나는 사업이 아닌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해상풍력 개발에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의회, 2026년 첫 의원간담회 개최

AI·드론 등 미래산업 육성 방안 집중 논의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19일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2026년 첫 의원간담회를 열고 AI 로봇·드론 등 미래산업과 생활 SOC 구축을 아우르는 주요 현안 14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가 제안한 제295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사전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성장전략실과 도시과 등 각 부서에서 제출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지역 인프라 구축 관련 정책들이 다각도로 검토했다.

의원들은 성장전략실로부터 '시설농업 AI 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 추진계획', '첨단 로봇 실증지구 조성계획' 등을 보고 받고, 관련 실증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농업 및 산업 현장에 접목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실있는 주진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 주력 산업인 특장차 분야의 고도화를 위해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



사업 추진계획'과 '차세대 투팅부품 산업 스타트업 육성센터', '백구 특장차 연구동 건립' 등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 도시과가 상정한 '부랑면 기초 생활거점 육성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 받고, 시설 조성의 타당성과 주민 편의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벽고을 다목적 문화센터'가 생활 SOC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와 연계한 효율적인 공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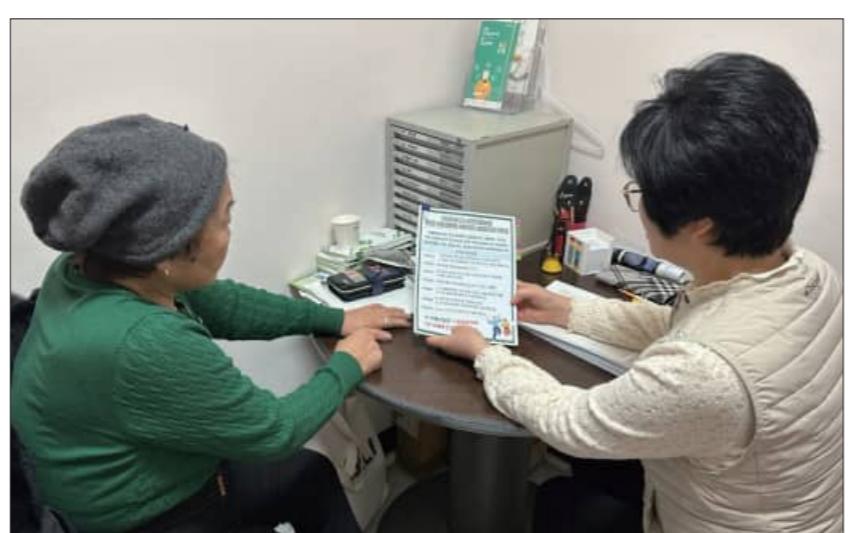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군민 고통과 부담 경감
을 해도 지속 추진

부안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 2022년 12월 부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부터 4년째 수술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무릎 관절증으로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수술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저소득층 어르신으로 지원액은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양측 무릎 기준 200만원 한도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비서류인 진단서, 수술확인서, 진료비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설 명절 대비 합동 위생 점검

전북도와 수거 검사 등 식품안전성 확보 나서

김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성수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19일부터 23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와 설 명절 합동 위생 지도점검 및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떡류, 한과류, 다류, 나물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반찬가게, 방앗간 등),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 등 식품점객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총 22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품 제조·판매 여부 △부폐·변질 원재료 사용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제품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시장 및 마트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수용

/김제=온봉기 기자

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고창군,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감면

12월 31일까지 50% ↓

고창군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 '개발행위허가 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규모에 비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높은 허가 비용 부담 및 불법 포장행위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선대상은 지역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농막, 육묘장, 저온저장고 등의 농업용 시설 및 체류형쉼터

등의 영농생활시설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콘크리트·잡석 포장행위가 포함된다. 다만, 절·성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cm 이하로 한정된다.

기준에는 실측평면도, 종·횡단면도 등 복잡한 도면 제출이 요구되며 허가 비용이 건당 약 200만 원~400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

으나, 앞으로는 건축계획평면도에 포장 위치만 표시하면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 간소화로 부족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주변 토지 피하여부, 안전성 등을 점검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공공성도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불법 포장행위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선대상은 저온저장고 명령 등 불필요한 행정적 소모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행정 편의가 아닌 군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덜어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민원처리 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수협, 새만금장례식장
김제시에 장학금 동시 기탁

김제사랑장학재단은 19일 김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영주)과 새만금장례식장(대표 김덕운)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제수산업협동조합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김제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미래를 함께 키워가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영주 조합장은 "김제 청소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작은 응원이지만 마음을 담아 전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은 "김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기관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은 지역사회에 큰 본보기 된다"며 "이 장학금은 김제의 미래 인재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밀가루가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산하출자·출연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협력 체계 구축

고창군이 군 산하 출자·출연기관장과 기관 경영 목표를 공유하고, 책임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고창군은 지난 16일 산하 4개의 출자·출연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출자·출연기관장 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계약은 출자·출연기관장의 성과 중심 기관운영과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각 기관장은 기관별 주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군은 향후 경영평가 시, 성과계획 이행 결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경영체계를 정착시키고 출자·출연기관장의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성과계약이 출자·출연기관과 군이 함께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21일 생명나눔 실천 현혈 행사 진행

겨울철 현혈 참여 시급

북혈액원과 협력해 진행하며, 김제시 보건소는 2025년 4회 현혈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혈액 수급 부족으로, 올해는 5회로 증가했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일로부터 1일 경과 시, 인플루엔자 치료 종료(완치) 후 1개월 경과 시 현혈 참여가 가능하고, 현혈 간격은 전혈현혈 8주 경과 이후부터 참여 가능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겨울철에는 혈액 수급이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이번 현혈 행사가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혈 참여가 시급한 시기로 긴급한 상황에서 한 방울을 혈액의 중요성은 이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다.

이번 현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전

김동기 주민자치위원장은 "부안읍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롭게 구성된 제11기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병태 부안읍장은 "제11기 주민자치위원회로 위촉된 위원들께서 지역을 위해 솔선수범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으로 더불어 사는 주민자치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 부안읍, 제11기 주민자치위원회 출범

고문 1명·위원 15명으로 구성

부안군 부안읍은 지난 16일 대회 의실에서 김동기 위원장을 비롯해 고문 1명과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제11기 부안읍 주민자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1기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으로 부안읍 주민의 문화·복지 편의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활동 강화를 위한 공식적인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가 지난 16일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직원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고창황토배기유통 주식회사를 비롯한 유통센터 내 기관의 업무 전반과 운영 여건을 확인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영식 부군수는 고창황토배기유통 송진의 대표로부터 회사의 운영 현황과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앞으로의 발전 방안과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 등을 청취한 뒤,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영식 부군수는 "이번 현장 방문은 농산물 유통체계 전반의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 상서면 남·여 새마을지도자회 2026년 정기총회 개최

부안군 상서면 남·여 새마을지도자회(회장 김준식, 부녀회장 정옥기)는 지난 16일 상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026년 상서면 새마을 남·여 지도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상서면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새마을운동 활동을 돌아보고 새해 사업 추진 방향과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새마을지도자회의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하며,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총회에서는 먼저 2025년도 주요 활동 성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상서면 새마을지도자회는 지난해 환경화 활동, 취약계층 지원 봉사, 마을 기구기 사업, 각종 지역행사 지원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특히 주민 참여형 봉사활동을 확대하며 세대 간 소통과 이웃 간 화합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기총회 이후에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실시됐다. 참석자들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부패·공익신고 절차 및 요령에 대해 공유하며,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청렴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이 지역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라는 데 공감하며,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정옥기 새마을 부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6년에도 화합과 봉사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순창군, 7억 투입 농촌주거환경 개선

**빈집·행랑채 철거 등 5개 사업 추진
지붕개량 25호 선정 50% 지원
빈집정비 6호 철거 후 공공활용**

순창군이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 7억 6,200만 원을 투입해 '2026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빈집·행랑채 철거 정비사업 △농촌 지붕개량 사업 △농식품부 빈집정비사업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등 5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농촌 지역의 빈집 정비와 노후 주택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 저해 요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빈집·행랑채 철거 지원사업'은

사용하지 않고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빈집은 가구당 300만 원,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행랑채의 경우 일반 가옥은 120만 원, 슬레이트 지붕 가옥은 240만 원까지 지원된다. 군은 올해 이 사업을 통해 빈집 40호와 행랑채 30호 등 총 70호에 대한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 지붕개량사업'은 지붕 노후로 인한 누수, 단열 저하 등 주거 퀄리티 문제를 겪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총 25호의 주택을 선정해, 지붕 재료에 관계없이 가구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거주 중인 주민들이 보다 안락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빈집정비사업'은 군이 직접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가구당 약 1,600만 원 규모로 총 6호가 대상이다. 특히 이 사업은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철거 후 해당 부지를 텃밭, 주차장 등 공공 용도로 1년 이상 활용하도록 해 지역 내 공동체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2월 13일까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의회 “통합 중단하라” 김지사 ‘정치쇼’ 맹공

**‘민의 짓밟는 정치폭거’ 규정
정부 통합인센티브 ‘왜곡’ 주장**

최근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일부 정치권이 제기하는 완주·전주 행정통합 시도와 관련,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는 ‘민의를 짓밟는 정치적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유의식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과 관련한 김 지사의 “소통이 미흡했다”는 취지의 최근 사과가 진정성 없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며, 정부의 광역 통합 정책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완주군민에게 통합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유의장은 완주·전주 통합 논의의 공식적인 종식과 모든 관련 행보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통합 추진을 멈추지 않는 사과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자 ‘악어의 눈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지사가 정부 인센티브를 통합의 주된 명분으로 삼는 점에 대해 유의장은 논리적 허점을 비판했다.



완주군의회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점화된 완주·전주 행정통합 시도를 ‘민의를 짓밟는 정치적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사진=완주군의회>

정부의 행정체계 개편은 광역 간 통합이 목적이기 기초지자체 강제 통합과는 무관하며, 확정된 국책 사업(AI 실증단지 등)을 통합의 구실로 삼아 군민을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 왜곡이란 조했다.

유의장은 전북 발전의 대안으로 “시·군 통합이 아닌 ‘5국 3특’ 전략에 기반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체 재정 특례와 권한 강화를 통해 자생적 발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의장은 통합 반대는 자치권 소멸을 예고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대한민국 옛길 목공예대전’ 새 단장… 규모·상금 확대

**남원 전국대전 ‘대한민국’으로
대상 훈격 ‘대통령상’ 격상 도전**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목공예협회가 주관해 온 ‘남원시 전국 옛길 목공예 대전’이 제29회를 맞아 ‘대한민국 옛길 목공예대전’(이하 ‘대전’)으로 명칭을 새롭게 단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가 후원하는 대전은 지난 2018년부터 국무총리상을 최고 훈격으로 시상해온 대한민국 명실상부 최고의 옛길 목공예 분야 공모전이다.

시는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계기로 지역을 상징하는 문화예술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공예문화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남원시는 이번 대전을 준비하며 두 가지 변화에 목표를 뒀다. 첫 번째는 대상 규모는 전년보다 10건이 더 증가한 총 47건으로 상장과 함께 상금 총 1억 4,000만 원(대상 4,000만 원)을 수여하며, 시상식은 제96회 남원 춘향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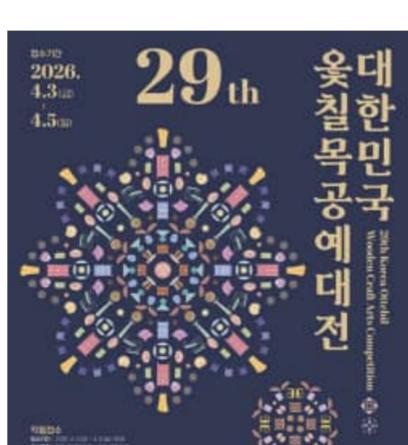
격상하고자 도전한다. 또한 시상금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증액해 시상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신진작가들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시상 규모를 총 37건에서 47건으로 10건을 더 증가시켰다. 신진작가들의 성장에 있어 큰 발판과 향후 옛길 목공예 분야 활성화에도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 대상은 옛길 목공예, 같이 공예 2개 분야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출품원서를 내려받아 작품과 함께 남원시청 강당 또는 서울 남원장학숙에 출품하면 된다.

시상 규모는 전년보다 10건이 더 증가한 총 47건으로 상장과 함께 상금 총 1억 4,000만 원(대상 4,000만 원)을 수여하며, 시상식은 제96회 남원 춘향제 기



간 중 남원 안숙선명창의 여정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오는 4월 15일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수상작은 남원(안숙선명창의 여정, 5월) 전시를 시작으로 전주 한옥마을(공예 품전시관, 6월), 2026 공예트렌드페어(12월) 등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농식품기업 통합마케팅 지원 대상자 모집

**전북바이오진흥원과 신규 추진
3개사 선정 총 9천만 원 지원**

남원시는 농식품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함께 2026년 농식품기업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지원사업은 연 매출 100억 미만의

농식품 제조기업 및 청년기업(2세 경영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별 필요에 맞춘 마케팅 전략을 지원한다.

대상 기업의 주도로 흥보 및 광고, 디자인 패키지 개발,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이 지원되고 통합마케팅을 통해 중대형 유통채널 입점 컨설팅, 국내 유통사 MD초청 상담회 및 팝업스토어나 국내 박람회 참여를 통한 온라인 플랫폼

공동관촉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이달 19일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asy1127@jif.re.kr)을 통해 신청하며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평가·선정을 거쳐 3개소에 총사업비 90백만 원을 3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수탁 계약

**체육시설 수영장 4곳 운영
전담팀 신설 본격 운영 시작**

완주군과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 관내 4개 체육시설(수영장)에 대한 신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공기업 방식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운영에 들어갔다.

19일 양 기관은 완주군청 전략 회의실에서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완주군 국민체육센터 △완주군 이서문화체육센터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 등 4개 체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소관 부서장, 이희수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공단 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상반기 가로등 신규 설치 추진

**23개 읍면동 수요조사 진행 중
내달 현장조사로 우선순위 검토**

남원시는 시민들의 야간 보행 안전 확보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 상반기 가로등 신규 설치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남원시는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가로등 설치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2월 중 현장조사를 실시해 설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3월부터 5월까지 가로등 신규 설치 공사를 추

진할 예정이며, 총 90여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남원시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범죄 취약지역과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동안 야간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의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필요한 지역에 가로등을 확대 설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 벗짚환원 지원 1,174ha 완료… 병해 예방 효과

**ha당 25만원… 토양 지력 증진
군비 추가 편성 지원 규모 확대**

순창군은 2025년도 벼 재배지의 토양 지력 증진과 병해 예방을 위해 ‘벗짚환원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총 1,174ha의 논에 대해 지원을 완료했다.

‘벗짚환원 지원사업’은 벼 수확 후 발생하는 벗짚을 잘게 절단해 가을에 깊이엎은 농지에 대해 ha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토양 유기물을 함량을 높이고 벼 생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25년에는 벼 캐씨무늬병 발생 예년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벗짚을 환원해 토양 지력을 회복하고 병해를 억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던 상황이었다.

이에 순창군은 애초 계획된 예산 외에도 군비 1억 4,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 총 2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480㏊가, 1,174ha의 벼 재배 논이 지원을 받았으며, 2025년 순창군 전체의 캐씨무늬병 평균 발생률이 14.9%에 달한 반면, 벗짚 환원 사업이 시행된 논의 발생률은 3.64%로 나타났다. 이는 약 11%포인트 이상의 뚜렷한 병해 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혈액 부족 해소 나서… ‘사랑의 현혈’ 진행

혈액 일일 보유량 ‘주의’ 진입 우려

남원시는 대안적십자사와 협력해 2026년 ‘생명나눔 사랑의 현혈’을 21일 시청광장(오전 10시~오후 4시), 농업기술센터(오전 10시~정오), 보건소(오후 1시 30분~오후 4시)에서 실시한다.

현혈은 수술 환자, 백혈병 등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중요한 활동이다. 특히, 최근 혈액 일일 보유량이 ‘주의 단계’로 진입이 우려되고 있어(1월 9일 기준), 어느 때보다 혈액 공급이 절실했던 시점이다.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많은 시민이 현혈에 참여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국영석 완주군수 출마예정자
‘농업특별시 완주’ 공약 발표**

국영석 완주군수 출마예정자는 19일 정책이 소득이 되는 3호 공약으로 ‘농업특별시 완주 5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국 출마예정자는 “완주의 농업을 판매 중심에서 생산·소비, 복지가 하나로 연결되는 ‘완주형 농업 경제’ 연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책임지는 농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어르신 농업인에게는 안정과 배려, 청년 농업인에게는 기회와 미래를 보장하는 농업특별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국 출마예정자는 농업특별시 완주 5대 프로젝트로 △완주군-조합-농민으로 구성된 농정협의체 상설화 △완주 농민 든든기금 500억 조성 △선구매·구독경제 중심의 완주 로컬푸드 3.0(사회적 연대 농업) 완성 △완주형 농업 공유인프라와 공공인력센터 가동 △완주형 농업 벤처·창업 벤더 조성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완주군, 지역농협 공동 필수농자재 통합구매단 운영을 통한 농자재 비용 절감, 자재 배달부터 현장 설치 및 살포까지 영농 대행반 운영, 농업예산 농민의무 반영제 도입 등이다.

공공급식·구독(구레미)·기업 연대 판매 확대, 농업생산비 책임공유제, 로컬푸드 연계 완주형 먹거리 복지 실현 등 사회적 연대 농업과 완주형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형 농촌인력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청년·창업농 멘토링 스쿨 운영, 완주군 농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과 밭자유화 시설을 이용한 스마트팜 교육 시설 등 농업 현대화를 추진한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기한 내 납부” 홍보 강화**

진안군, 상수도 대비
신속대응반 운영

진안군은 오는 3월까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상수도 위급 상황 대비를 위해 신속대응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속대응반은 상수도 담당 공무원과 전문 인력 3개 반 43명으로 구성됐으며, 1월부터 3월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동파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과 복구에 대응을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상수도 시설(배수지, 가압장) 사전 점검 △취약지역(외딴집, 고지대 등) 집중 관리 △동파 발생 시 긴급 복구 및 임시 급수 지원 △주민 대상 동파 예방 요령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계량기 보호함 보온 상태 점검, 장기간 외출 시 수도관 관리 요령 안내 등 생활 속 동파 예방 수칙을 적극 안내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상수도 동파 및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진안군 상수도과(430-8732-8740)로 연락하면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천천면,
제13기 주민자치위원회 출범식

장수군 천천면은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제13기 천천면 주민자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할 위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현원 천천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위촉장 전수를 시작으로 임원 선출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열린 회의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향후 주민자치 활동 방향과 중장기 비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제13기 천천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고문 3명과 위원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임원 선출 결과와 최현관 위원장이 선출됐고 이동희·박 인숙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또한 고현정 위원이 사무국장으로 지명돼 앞으로 2년간 제13기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최현관 위원장은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앞으로 지역 발전과 면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라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 덕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정기총회…봉사활동 강화 다짐

임실군 덕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임이택)는 지난 14일 덕치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새마을지도자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는 지난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사회봉사활동 전반에 대한 자체 평가와 연말 결산을 진행하고 향후 봉사활동의 방향 설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는 사회봉사활동을 더욱 강화해 불우이웃 돋기와 노인 공경 실천은 물론, 면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도 선도적으로 참여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덕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작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함으로써 단체의 도움이 될 만한 새마을 정신을 발휘하였다.

이날 총회에서 임이택 회장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활동하며 새마을정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인구정책 군민 아이디어 공모

1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장수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

장수군은 인구감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인구정책 군민 아이디어 공모’를 19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19일부터 내달 20일까지다.

공모 주제는 △저출산 대응 △생활인구 유입 △경제활동인구 확충 △고령 사회 대비 △지역 공동체 조성 등으로 인구 정책과 관련된 분야는 물론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협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폭넓은 아이디어 제시가 가능하다.

장수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희망자는 장수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군청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063-350-2041) 및 각 읍·면 총무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우편(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군청 기획조정실 국 민제안담당자) 또는 이메일(jung67@korea.kr)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행 가능성과 창의성, 정책 반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우수한 제안에 대해 △금상 1건(50만 원) △은상 2건(40만 원) △동상 1건(30만 원) △장려상 2건(20만 원)을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작 발표 및 시상금 지급은 4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계획된 정책, 단순 현물 지원성 사업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공모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는 군청에 실제 반영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재난상황팀’ 신설…24시간 상시 대응

24시간 안전모니터링 체계 구축

임실군이 각종 사회재난과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재난상황팀’을 신설하고, 24시간 상시 대응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조직은 자연재난의 예측 가능성 이 낮아지고, 화재·사고·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대형·복합화되는 상황 속에서, 재난 대응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한층 강화해 재난대응의 속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추진됐다.

최근 기후변화로 태풍·집중호우·폭염 등 자연재난의 양성이 기贩하고 사회재난 역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임실군은 그동안 분산돼 있던 재난관리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상황 인지부터 초기대응, 보고와 후속 조치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끊김없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현장 중심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를 전면 정



임실군이 각종 사회재난과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재난상황팀’을 신설했다.

비했다.

신설된 재난상황팀은 임실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핵심조직으로서 △24시간 재난 상황 상시 모니터링 △초동 대응조치 및 보고 체계 일원화 △재난 예보 시스템 통합 관리 △유관기관 협력 대응체계 강화 등을 전담 수행한다.

특히, 야간과 휴일 등 기준에 대응이 취약했던 시간대까지 공백없이 관리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상시대응 체계를 완성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2026년 귀농·귀촌 지원 확대 눈길

조례 개정 통한 지원 대상자 확대 ‘찾아가는 귀농·귀촌 상담실’ 운영

무주군이 2026년 귀농·귀촌 지원 사업 주진 계획을 밝혔다.

총사업비 1억 8천9백만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귀농·귀촌·귀향인의 안정적인 무주 정착을 독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주거와 영농 분야 등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신청은 내달 6일까지이며, △영농 지원, △주택 수리비 지원, △건축설계 비용 지원,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이사 비용 지원, △집들이 비용 등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또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등은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성옥 무주군청 인구활력과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도농복합시의 읍 지역에서 전입한 사람도 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자와 지원 내용을 모두 확대했다”라며 “무주로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이 이주 정착에 필요한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찾아가는 귀농·귀촌 상담실’도 운영한다. 19일 안성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담당자가 직접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비롯해 △귀농 농업 창업, △주택 구매(융자) 지원 사업까지

대면 상담하고 사업별 신청서 작성도 돋는다.

상담 일정은 20일 설천면, 22일 무풍면, 23일 무주읍, 26일 부남면, 28일 적성면 순으로 이어진다. 이 외에도 전용 상담 채널(1551-6858) 운영과 귀농·귀촌 서포터스 운영을 통해 수요자 밀착형 상담과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무주군은 올 한 해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 주력할 방침으로,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운영 안정화, △상담·민원 분석 기반의 수요자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귀농·귀촌인의 지역경제 참여 확대를 통한 협력 제고 등 전략 추진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국회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건의

양수발전소 유치·국도26호선 개량 등 적극 지원 요청

진안군은 19일 국회를 방문해 전북 지역 국회의원실 보좌진들과 면담하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경영 진안부군수 등 군 관계자들은 한병도 의원실, 윤준병 의원실, 안호영 의원실 등을 차례로 방문해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 지원 △국도 26호선 도로 개량 사업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등에 대해 건의했다.

진안군은 주천면 대불리·주양리

일원에 총사업비 1.7조 원 규모의 600MW급 양수발전소 유치를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전북자치도 지역의 신생에너지 저장 인프라 확충은 물론 RE100 단지 성공을 위한 필수 시설이다.

특히, 군민 77.3%가 동의하는 등 높은 지역 수용성을 자랑하고, 유효낙지의 충분한 확보로 경제성이 높으며 수몰 가구가 없는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강점으로 갖고 있음을 강조하며, 신규 양수발전 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완주 소양면~진안 부귀면을 잇는 국도 26호선(2.4km, 4차로) 도로 개량 사업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도 건의했다.

진안군은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에도 중앙부처 및 국회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 고로쇠 축제, 전북 작은마을축제 ‘최우수’

진안고원운장산 고로쇠 축제
3월 14일, 15일 개최

진안군 대표 봄철 축제인 ‘진안고원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전북특별자치도 작은마을축제 평가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진안고원운장산 고로쇠 축제는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채취한 고로쇠 수액을 중심으로 지역의 전통문화와 특산물을 조화롭게 접목한 축제로, 해마다 주민들은 물론 방문객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어왔다.

지난해 진안군과 운장산 고로쇠 축제 위원회는 고로쇠 축제를 살린 다채로운 공연과 지역 농특산물 판매 부스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와 먹거리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자연 친형 콘텐츠를 선보이며, 진안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올해로 제22회를 맞는 진안고원운장산 고로쇠 축제는 ‘맑은 산속, 건강 한모금’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운일암반일암 삼거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공정성·객관성 확보 기대

무주군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검증 기간인 오는 3월 1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방법,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상담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함께 진행된다.

별도 요청 시 토지소유자와 감정평가사의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우수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 면접 실시

필리핀劳工 현지 서초종 면접 실시

진안군은 2026년도 운영될 우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필리핀과 라오스 현지를 찾아 최종 면접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영농적자 농촌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2023년도부터 해외 지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법무부 결국 계절근로자 788명과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199명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2025년 57명에서 2026년 80명으로 확대 운영해 영농 적자 인력난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면접을 위해 군청 농업정책과와 농촌일손지원센터 관계자 등은 지난 6일~9일까지 라오스를 방문해 현

장수군, 2026년 동계 대학생 사회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수군 19일 군청 군민회관에서

2026년 동계 대학생 사회체험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3주 간의 행정체험 프로그램을 공식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장수군수와 선발된 아르바이트 참여자 34명이 참석해 첫 일정을 함께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대학생들에게 청소



장수 계남면 남녀의용소방대,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장수군은 계남면 남녀의용소방대(대장 양용수, 김영애)가 계남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돋기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새해를 맞아 장수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자 계남면 남녀의용소방대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에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

양용수 남성의용소방대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원들의 정성을 모았다”며 “이번 나눔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희망으로 전해져 모두가 온기를 느끼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애 여성의용소방대장 역시 “의용소방대는 안전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군산남성의용소방대, 취약계층에 100만원 기탁

흥남동행정복지센터는 군산남성의용소방대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돋기 위해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남궁일선 대장을 비롯한 대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금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도록 하는 나눔 활동의 하나로 이뤄졌다.

특히 군산남성의용소방대는 화재 예방과 재난 대응 활동은 물론, 평소에도 지역사회 봉사와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이다.

남궁일선 군산남성의용소방대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대원들과 함께 나눔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흥남동 지역의 이웃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승진 국장 4인,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쾌척’

공직자로서 사회적 책임 다해

정읍시 간부 공무원들이 영예로운 승진의 기쁨을 이웃 사랑으로 성취로 끌어내기보다는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지난 1월 정기인사를 통해 승진한 국장급 공무원 4명은 최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정읍시에 기탁했다.

이번 나눔에 동참한 주인공은 강용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지원 의회사무국장, 손연국 도시안

전국장, 이남석 관광체육국장이다.

이들은 승진의 기쁨을 개인적인 성취로 끌어내기보다는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성금을 기탁한 국장들은 “더 큰 책임을 맡게 된 만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정읍=김정인 기자



임실 관촌면 농촌지도자회,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임실군 관촌면 농촌지도자회(회장 이장래)는 지난 14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관촌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관촌면 농촌지도자회는 총 4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 신기술 보급의 선도·실천 및 농업인의 지도·양성 등 농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고, 장학금 기탁과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장래 회장은 “회원들의 작은 나눔이 조금씩 모여 이번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으며, 이 작은 나눔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기탁받은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재)고창군장학재단, 새해에도 따뜻한 기탁 이어져

고창친환경블루베리연구회 등

고창군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새해에도 꾸준히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19일 고창군장학재단에 따르면 이날 고창친환경블루베리연구회(회장 백석기)에서 200만원, 성송면 이성진씨 100만원, (주)고창레미콘 김정희 대표 500만원, (주)유진건설 이영신 대표 300만원을 각각 기탁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뜻을 모았다.

고창군장학재단은 지난해 역대 최고인 4억4500만원의 장학금이 모금됐다. 조성된 장학금은 대학등록금 지원, 서울·전주 장학숙 운영 등 다양한 인재육성 사업에 활용되어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고창군장학재단은 “장학금 기탁은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동행이다”며 “기탁자 한분한분의 정성을 모아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다시 지역을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무주 설천면지사협, 경로당에 ‘떡국떡’ 나눔

무주군 설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를 간 지역 내 46개 경로당에 ‘떡국떡’을 지원(280kg, 150만 원 상당)하는 나눔 행사를 펼쳐 훈훈함을 전했다.

이번 나눔은 기부받은 고향사랑 기부제 담례품과 협의체 위원들이 마련한 기금을 기반으로 추진됐으며,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떡국떡’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전상호 민간위원장은 “새해를 맞아 어르신들의 장수와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떡국떡을 전달하게 됐다”며 “좋은 기운을 나누며 시작한 2026년 한 해가 설천면, 나아가 무주군 전체의 발전과 화합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졸업을 앞둔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단순한 기념식으로 넘어 선후배가 함께 추억을 나누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고등학교라

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두려움 없이 도전하며 열심히 생활하겠다”고 말했다. 재학생 대표는 “선배들의 노력하는 모습은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됐다”며 “새로운 곳에서도 선배들의 꿈이 마음껏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전했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주=최의호 기자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 중학교 졸업·진학 응원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가 고산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졸업과 고등학교 진학을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졸업을 앞둔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단순한 기념식으로 넘어 선후배가 함께 추억을 나누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무리였다.

한 졸업생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 큰 무리였다.

〈一事一言〉



각자도생의 시대, 한반도는 자강 평화가 길이다(1)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

병오년 새해 벽두부터 국제정세가 뒤숭숭하다. 1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 특수부대가 조봉암의 진보당이 내건 평화통일론, 4·19혁명 직후 혁신계정당들의 중립화통일론, 그리고 1971년 김대중 대통령후보의 3단계 통일론이 이러한 흐름을 이었다. 이러한 통일론은 '선전설 후통일'을 내걸며 적대적 공존을 추구한 박정희 정부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아왔다.

그런 가운데 1월 2일 정동영 장관은 통일부 시무식에서 올해를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한국정부가 먼저 변화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북·미 회담을 남북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으려는 우리 정부의 구상도 난관에 봉착했다. 북한의 최근 행태로 볼 때 4월 북·미 정상회동이 있더라도 성과 도출이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성사 자체도 불확실해 보이기 때문인이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남북관계의 단절 속에서 우리나라의 안보전략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 담론은 주변국 관계보다 주로 북한과의 평화체제 구축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 최근 국제 안보정책의 흐름은 더 이상 기존 평화패러다임이 작동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새롭게 내건 '평화공존'의 정책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민주진보전영은 이념을 넘어서 민족, 내에서 분단체제론-양국체제론 논

단을 극복하는 통일 담론을 제기하며 보수진영과 차별화해 왔다. 조봉암의 진보당이 내건 평화통일론은 4·19혁명 직후 혁신계정당들의 중립화통일론, 그리고 1971년 김대중 대통령후보의 3단계 통일론이 이러한 흐름을 이었다. 이러한 통일론은 '선전설 후통일'

을 내걸며 적대적 공존을 추구한 박정희 정부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아왔다.

1990년대 들어와 김대중 후보는 3단계 통일론을 발전시켜 '사실상의 통일'을 내세우며 남북연합론을 구체화했다. 남북연합론은 평화공존의 2국가관계를 핵심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4개국 교차승인을 제시했다.

이후 민주진보전영에서는 점차 통일보다는 평화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정과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내걸면서 평화의 제도화를 당면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체제경쟁에서 뒤쳐진 북한은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장을 밝힌 이후 해·미사일 개발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며 마침내 2017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고 이를바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전쟁 재발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 담론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당위적 통일론은 더욱 설 자리를 잃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진보전영 내에서 분단체제론-양국체제론 논

쟁이 일어났다. 분단체제론이 평화공존을 거쳐 남북연합을 수립해 '사실상의 통일'을 이룬 뒤 통일국가로 가야 한다고 본 데 비해, 코리아 양국체제론은 평화공존 자체를 목표로 보고 남북관계의 미래도 단일한 민족국가가 아니라 열려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민주진보전영 내부에서 당위적 통일론에서 평화공존론으로 전개되면서 2국가론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다.

그런 가운데, 남북의 국력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보수진영에서는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을 닮은 흡수통일 담론이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3대 공동체 통일구상과 통일항아리 운동,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백문과 전국 단위의 통일준비위원회 조직, 그리고 자유의 북진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8.15통일독트린이 나온 것이다.

과거 민주진보전영이 통일 담론은 주도했지만 평화 담론에 치중하면서 이제는 보수진영에게 그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다. 현 국제정세나 한반도 상황을 볼 때, 통일을 추구할 단계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평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족의 숙원인 '통일 담론'의 주도권을 보수진영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보수진영은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을 추구하기보다는 흡수통일, 기껏해야 분단을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연연해 왔기

때문이다.

평화 담론의 하나로 양국체제론에 따른 평화공존(Peaceful Coexistence)론에 대해서도 성찰이 필요하다. 고전적인 평화공존론은 1920년대 레닌이 처음 제기한 것으로, 이후 핵위기가 고조되면서 1956년 제20차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흐루시초프 서기장이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전쟁회피와 핵억제, △비군사적 경쟁,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등 3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과거 남북대화 과정에서 우리측이 '남북 평화공존'이라는 용어를 쓸 때마다 북측이 '두 개의 조선 혼동'이라고 비난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고전적 평화공존론은 출발부터 '주권국가 간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을 선포한 것 자체가 남북한의 '2국가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잘못 비칠 우려가 있다. 원래 취지가 평화통일의 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고전적인 개념을 그대로 쓸 것이 아니라 한반도 상황에 맞게 중장기적 통일의 목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반도 평화공존'을 재정의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게 개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전북을 혁신의 무대로 선언한 국무총리 메시지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북을 찾아 'K-국정설명회'를 연 것은 단순한 지역 순회 일정 이상의 정치적·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국정 운영의 성과와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그 무대가 전북이었다는 점은 현 정부가 표방해 온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주도 성장 전략이 이제 선언의 단계를 넘어 실천의 시험대에 올랐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지금까지 지속해 온 수도권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역을 국가 혁신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현장에서 구체화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

김 총리는 "전북은 지역기반 미래성장 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한 대목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전북을 더 이상 정책 수혜의 대상이나 낙후 지역의 대명사로 바라보지 않고 새로운 국가 성장모델을 실험하고 검증하는 핵심 무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농업·식품·에너지 등 전북의 강점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 모델이 성공한다면 이는 전북만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확산될 수 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안보,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해법을 지역에서 찾겠다는 점에서 정책적 과급력도 크다.

이번 설명회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소통 방식'에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 설명이 일방적 전달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김 총리는 지역 주민과 청년, 지방의 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의 장을 통해 질문을 받고 답했다.

특히 청년들의 참여와 도전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지역 소멸과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 지역 발전의 성과가 결국 사람, 그중에서도 청년에게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방문은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중앙이 방향과 제도를 설계하고 지방이 실행과 혁신을 주도하는 구조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지역균형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전북이 정책 실험의 장이자 성과 창출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전국에서 아홉 번째로 이어진 'K-국정설명회'가 KTV 생중계를 통해 전국에 공개된 점도 긍정적이다. 국정 운영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책임 정치의 기본 조건이다. 설명회가 실제 정책 조정과 예산,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 진정성이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곧은 다시 중앙정부와 전북 모두에게 넘어갔다. 정부는 전북을 테스트베드로 삼겠다는 약속에 걸맞게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제도적 뒷받침을 다해야 한다. 전북 역시 주어진 기회를 능동적으로 활용해 실질적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

김민석 총리의 이번 전북 방문은 지역균형발전이 국가 전략임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그 의미와 효과가 선언에 머물지 않고 전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기서강학당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유적건조물, 서당
- 지정일 - 1981년 4월 1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고창군 사동길 40-160
(고수면, 김기서강학당)



2011년 10월01일 창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월간)

우)54990

www.jeonbuktimes.co.kr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강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충청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구지사 010-8640-6855	의성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원주지국 010-3672-0308
제주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8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오늘의 시

길 / 이 외 수

버리고 일어서라.
시간의 감옥
눈 먼 등대 아래서
실해당한 바다곁에서
누군가

진눈깨비에 빠를 적시며
울고 있지만
아무리 깊은 어둠
부러진 날개
참혹하여도

시인 악력 : 1946년 경남 함양 출생. 1964년 춘천교대를 중퇴했다. 1975년 중편 '훈장'이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정식 등단했다.

'겨울나기', 장편 '들개', '칼', '산목', '벽오금학도' 등을 비롯 예술

버리고 일어서라.
버리고 일어서라.
이 세상 모든 길들은
내게서 떠나가는 자를 위해서
가 아니라

1994년 선화(仙畫) 개인전을 개최하는 등 화가로서의 경력도 있다.
소설 '훈장'과 '꿈꾸는 식물', 시집

내게로 돌아오는 자를 위해서
영원토록
잠들지 않나니...
비 내리는데 '날다 타조' '하악하악' 등이 있다.

으로 '풀꽃 솔잔 나비' '그리움도 화석이 된다', 에세이 '내 잠 속에 비 내리는데' '날다 타조' '하악하악' 등이 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 광고문의 282-9601

◇ 기사제보 282-9600

◇ 신문구독 283-8800





새로운 시작, 더 행복해질 장수군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예산 5천억 시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도시 장수

기대와 설렘의 새해, ‘리드푸드’ 도시 장수의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시작됐다. 장수군은 지난 한 해 동안 군정 전반에서 긍정한 전환점을 만들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으로 전 군민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고 본예산 기준군 역사상 처음으로 예산 5000억 원 시대를 맞이하며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다졌다.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2,144억 원 규모 확보, 공모사업 도전 성과 등이 더해지며 군정 추진 동력을 끌어올렸다는 점도 주목된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으로 군 청렴 역사를 새롭게 썼다.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각 분야에서 상을 훨씬 넘어서 빛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는 새롭게 도약하는 장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선이기도 하다.

장수군의 올해 사자성어는 ‘금석위개(金石爲開)’이다. 어떠한 일이든 강한 의지로 전력을 다하면 쇠와 돌도 뚫을 수 있다는 뜻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끈기 있게 노력한다면 결국 성과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군민과 함께 단기간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축적된 노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군정 과제를 차분히 완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도시, 군민과 함께 열어갈 장수의 2026년을 들여다보자.

(편집자주)

▲ 장수군 활력 회복을 위한 첫 걸음,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 본격 시작

2026년 장수의 군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이다.

군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군민들의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약 2만 1000여 명의 군민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해 2년 간 총 754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 군민의 생활 안정과 함께 지역 내 소비가 자연스럽게 선순환되도록 설계됐다.

장수군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군 단위 기본소득위원회와 읍·면 기본

소득위원회를 이원화해 구성해 군 위원회는 정책 방향과 운영 전반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읍·면 위원회는 신청 접수, 자격 확인, 지금 대상자 결정 등 현장 중심의 운영을 담당한다.

특히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여하는 마을 조사단을 운영해 실거주 여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농업은 ‘스마트·고도화’로… 과수·원예·축산 경쟁력 강화에 집중

장수군은 올해도 농업을 군정의 핵심축으로 두고 생산 기반 고도화와 미래 대응형 농업 구조 전환에 힘을 쏟는다.

먼저 천천히 장판리와 장수읍 두산리 일원에 16.8ha 규모로 ‘스마트 과수원 특

화단지’가 조성된다. 과수 주산지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스마트 기반의

생산·관리 체계를 접목해 미래형 과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장 체감도가 높은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구입 부담을 완화해 작업 효율을 높이고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인력 부족이 일상화된 농촌 현실에서 이러한 기반 사업은 농업 지속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농군사관학교’ 운영도 눈에 띈다.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9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토태·중급·심화 과정, 사과 다축·밀식 과정 등 이론과 현장교육을 병행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단기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기술과 경영 역량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원예·시설 분야에서는 ICT 융복합 지원과 청년 스마트팜 확산, 과수 생산 기반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품질 경쟁력과 생산 안정성을 함께 높인다. 축산 분야 역시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과 우량 혈통 관리 등을 통해 장수한우 명품화와 지속 가능한 축산 전환을 목표로 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 대표관광지·국가생태관광지·축제·산악레저 ‘100만 관광 장수시대’ 실현

그동안 관광 인프라가 부족했던 장수는 이제 대표관광지, 국가생태관광지, 대표 축제, 산악레저를 중심으로 ‘100만 관광 장수시대’로 새롭게 비상하고 있다.

민선8기 출범 당시 22만 여명에 불과 했던 관광객 수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98만 여명으로 100만명에 육박했다.

올해 장수누리파크는 체험형 유리온실과 치유정원, 친환경 스테이, 글램핑장, 놀이공간 등이 어우러진 복합 관광 공간으로 만들어 군 대표 관광지로 조성된다.

먼저 천천히 장판리와 장수읍 두산리 일원에 16.8ha 규모로 ‘스마트 과수원 특

화단지’가 조성된다. 과수 주산지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스마트 기반의

을 대표하는 생태관광 1번지로 만든다.

또한 여름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쿨밸리 페스티벌’과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축제’에 이어 4년 연속 전북특자도 최우수 축제로 지정된 군 대표축제인 ‘장수 한우랑사과축제’는 더욱더 다채로운 불거리와 즐길거리 만들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축제로 만든다.

산악레저 분야에서는 트레일로드와 MTB 코스 조성, 생활인구 확충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장수군만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레저 기반을 강화한다. 장수트레일리스와 캐니크로스 등 기존 대회는 연중 콘텐츠로 확장해 ‘한국의 샤모니’ 국제산악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

이처럼 굴뚝 없는 관광산업에 열정을 쏟고 있는 장수군의 도전과 전진하는 행정은 ‘100만 관광 장수시대’ 실현을 통해 올해 빛을 발할 전망이다.

▲ 공공임대주택 중심 주거 기반 확충…청년·청년 정책은 ‘공간’으로 완성

장수군은 올해 주거 분야에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중심으로 정주 기반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청년·신혼부부부터 고령층까지 생애 주기별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군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계획된 ‘참삼골 행복주택’은 올해 5월까지 1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동부권 특수학교인 덕유샘 학교와 연계한 주거 지원을 중심으로 학교 관련 종사자와 보호자 등의 안정적인 거주를 뒷받침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계·계남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함께 추진해 권역별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 장수군은 LH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총 22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장계면에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140세대를 조성해 주거 공급과 마을 정비를 연계하고 장계 생활권의 정주 기능을 보완한다.

여기에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사업을 이전 단계에서 건강을 지키는 생활 보건 체계를 구축한다.

장수군은 이러한 복지 정책이 단발성

미니 인터뷰 / 최훈식 장수군수

지난해 장수군은 ‘군민 중심 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오직 장수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장수군은 군 생활 아래로 최고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지난 시간 전도과 인내로 씨앗을 뿌리고 가꿔왔다면 2026년은 그 결실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수확하고 나누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장수군은 군정 전반에서 의미있는 결실을 거두며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져왔고 올해도 흔들림 없이 군정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장수군은 전 군민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와 ‘예산 5천억 시대’의 견고한 토대 위에서 ‘군민이 주인인 장수’,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라는 민선8기 군정방침을 구호에 디자인 않고 군민들과 함께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과 도약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 2026년에도 장수의 모든 공직자들은 군민과 함께 일상협력해 더 살기 좋은 장수, 미래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장수를 만드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단기간에 드러나는 성과보다 장수의 미래를 지탱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하며 백년을 내다보는 군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힘찬 여성에 군민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급해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 행복이 있는 복지 도시, ‘장수형 통합돌봄’ 확대와 생활 밀착 복지

행복이 있는 복지 도시, 사각지대 없는 계층별 맞춤형 복지를 추진한다. 올해 복지 분야에서는 ‘장수형 통합돌봄’ 체계 확대가 핵심이다.

방문의료, 일상돌봄, 주거개선 지원 등을 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군민이 생활하는데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체육 활동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군민들의 건강한 여가를 책임질 ‘어울림형 반다비체육센터’ 건립도 본격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

장수군 노하리 일원에는 36홀 규모의 장수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실내·야외 체육시설을 균형 있게 확장해 군민이 일상 속에서 운동과 여가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군민들의 건강한 여가를 책임질 ‘어울림형 반다비체육센터’ 건립도 본격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

장수군 누구나 한 곳에서 문화와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계층별, 권역별, 균형 있는 문화·체육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고자 한다.

/장수=최진수 기자